

# 벤처투자시장 1조 '마중물' 붓는다 초기·지방·글로벌펀드 다각적 지원

오영주 장관,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1.9조 규모 벤처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펀드, AI·기후테크 다각화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 신속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을 붓는다.

이를 위해 1월 중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조기 공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2025년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기부는 모태펀드 총 1조원을 출자해 1조9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세컨더리 펀드'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구주)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방 분야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함께 3년간 1조원 이상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 초기 분야에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창업초기 분야가 아닌 펀드도 초기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 의무를 제한한 운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사를 우대 선정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최대 20%)하고,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해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한다.

중기부의 2025년 모태펀드 출자방향 설명 이후에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중대형 벤처캐피탈, 루키 벤처캐피탈,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등 새로운 벤처투자 참여주체 유입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바이오 투자 마중물 확대 ▲국내 벤처캐피탈(VC)의 글로벌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지원 등을 주문했다.

건의사항은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및 향후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1조원 규모 모

태펀드 출자사업을 1월 중 조기 공고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향후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후엔 전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바이오벤처는 매출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구비용은 계속 투입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후기 단계로 쏠림에 따라 초기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바이오벤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제약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과 30조원 이상의 기술수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급한 부분은 적시에 해결하고, 바이오벤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홈쇼핑, '일사천리'로 中企 판로 앞장

일부 제품 일반방송 전환 추가 판매

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16일 홈쇼핑에 따르면 자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판로 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를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상품추진위원회(상추위), 그리고 1등 농어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품을 발굴해 총 132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을 소비자와 연결해 판로 확대에 이바지했다.

일사천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요릿분말육수', '온제향가뭇' 등은 중소기업 지원 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판로확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요릿분말육수'는 단 1회 방송으로 주문액이 1억원을 달성했고, '동결건조나물' 회당 주문금액도 9800만원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울커니마켓'의 레드향은 ▲취급액 1억6000만원 ▲달성률 140% ▲4000개 이상 주문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홈쇼핑 관계자는 "일사천리 사업의 성공 비결은 MD 상담회를 거쳐 지역 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꼼꼼하게 상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앤쇼핑 본사 모습.

품을 선정하고 50대50 비율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이 단순히 지역 상품에 그치지 않고 홈앤쇼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도 ▲해풍명가 코다리 ▲울커니 마켓 레드향 ▲장생김온명란 ▲영도특도 영도 반시 꽃감 ▲황도해남고구마 ▲김정배 명인 명란 ▲양구 명품 시래기 방송을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판로 개척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메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박재천 메인비즈협회 명예회장, 우크라이나 오데사 올렉산더 데니센코 주위원,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 메인비즈協, 우크라이나 재건 나선다

金 회장 "양국 경제협력 등 노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나선다.

메인비즈협회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의회와 '메인비즈기업-우크라이나 간 재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과 오데사 올렉산더 데니센코 주위원을 비롯해 메인비즈협회 박재천

명예회장, 김경수 부회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만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경제·무역, 물류·해운산업 등 협력 ▲각종 사회 분야(교육, 헬스케어, 관광, 문화, 스포츠 등) 교류 촉진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경제·투자포럼 추진 ▲투자 프로젝트 공동 참여 기회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 中企 10곳 중 6곳,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기부·창진원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482만9000개, 중소기업의 60.1%  
기술기반창업 96.5만개, 전체 20%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숫자,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했다.

IT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약 20%, 종사자 수는 30% 가량을 각각 차지했다.

창업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돈'이었다. 시작할 때 필요한 평균 자금은 약 2억원 정도였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수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482만900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804만3000

개) 가운데 60.1% 수준이다.

'창업기업'이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당시 429만9000개이던 창업기업은 2021년 454만9100개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졌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은 96만5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2% ↑), 정보통신업(14.4%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6% ↑) 등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기술기반창업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비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386만5000개)은 농업(16.7%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2.4% ↑), 도매 및 소매업(11.0% ↑)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창업기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6.3% 늘어난 851만5000명(평균 1.8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895만6000명)의 44.9%에 달했다. 2021년 732만1542명(평균 1.6명)에서 12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57만8000명(평균 2.7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학·기술(27.9%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2.5% ↑) ▲정보통신업(18.8%) 종사자들이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186조1000억원(평균 2억5000만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3309조원)의 35.8% 수준이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331조5000억원이다.

창업자 83.3%(복수응답 포함)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재창업기업은 29.6%로 전년(35.4%)보다 감소했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시행

설치·A/S 신청한 개인 고객들 대상

코웨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설치 또는 A/S를 신청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고객에게 서비스매니저(설치·A/S 기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알람톡으로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전달받은 알람톡을 통해 도

착 안내 화면에서 서비스매니저의 출발에 대한 정보부터 현재 위치,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매니저들이 기존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화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매니저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